

당장 멀리해야 할 두 가지 : 걱정으로 주저하고 변명으로 포기하는 것

- 이름 : 이준홍
- 현 소속기관 : UNDP Timor-Leste
- 부서 :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upport Unit
- 직위 : Communication Officer
- 지원경로 : 2015년 UN Youth Volunteer (2기 유엔청년봉사단)
- 근무기간 : 2015. 3. 27. ~ 2016. 3. 27. (1년- 현재근무 중)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괴테-

들어가는 말

아침 7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출근길에 오르며, 도로 한복판에서 유유자적 되새김질을 하거나 신호나 자동차 따위는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소들에게 온 신경이 집중된다. 나쁜 만이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다. 소들이 느릿느릿 지나가기를 마치면, 멈추었던 비디아가 재생되듯, 너도나도 가던 길을 재촉한다. 소들 앞에서 인간의 시간이 한없이 굴곡이 지는 나라. 2010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겁도 없이 내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곳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자락에 위치한 나라, 네팔이었다.

네팔과의 인연이 닿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팔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에서 정치과학 (Political Science)을 공부하며 특히 개도국 안보 및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자 했던 나는, 졸업을 1년 앞당겨 어디든 좋으니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경력을 쌓자고 계획했다. 그리하여 졸업 학기 말, 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러 한국 대사관에 자기 소개서를 보내보았다. 개발도상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라면, 개도국의 현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부처들의 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보낸 후 하루아침에 거절당한 곳도 수두룩했지만, 감사하게도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들을 받았고 (코트디부아르, 인도, 네팔 등), 곧이어 전화인터뷰도 했다. 욕심 같아서는 모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고심 끝에 주 네팔한국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임금을 받고 6개월간 인턴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첫 사회생활이자, 인턴 경력,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생활이 막을 올렸다. 처음에 말했듯, 지금 생각해 보면, 네팔이 나를 선택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네팔에서의 1년이 나의 앞으로의 행보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5년 전의 나처럼 정보 하나가 아쉬울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간절할 수 있다. 혹은 국제기구 및 해외에서의 근무 경험에 막연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에 이 글을 놓고 나와 마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맞춤형 답을 선사 할 수 는 없지만, 일련의 나의 경험 (주 네팔한국대사관 인턴, 네팔 코이카 사무소ODA 청년인턴, 그리고 현재 유엔 청년봉사단원으로써 유엔디피 동티모르 사무소에서 일)을 공유함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경험을 쌓고 싶은 모든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0 주 네팔한국대사관 인턴 ~ 2011 네팔 KOICA ODA 청년인턴 1기: 길면 길고 짧다면 너무 짧았던 1년

주 네팔한국대사관에서 인턴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 이후로, 대학 졸업을 실감도 못할 만큼 출국 준비로 바빴다. 개발도상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다 보니 짐 싸는데 너무 애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수 천 미터 상공 위에서 하얗고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을 아래 두고 날아가고 있었다. 설산에 반사 된 어마어마한 양의 햇볕에 눈이 부신 타인지, 기압차이로 귀가 멍멍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신들의 나라’ 로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 할 정도로 네팔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절감했다.

하지만 새로운 풍경과 생활이 눈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대사관에서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네팔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네팔 개황’ 을 서기관님과 함께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네팔의 교류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대사관에서 출판하는 ‘Look Nepal’ 매거진을 구성부터, 편집까지 참서관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주 네팔한국대사관 인턴쉽은 정말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 내의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나에게 ‘견문’ 을 넓히는 최초의 걸음마였다.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끼리 혹은 대사관과 정부 당국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 개발도상국 안에서 대사관이 갖는 입장 혹은 관점에 대해 어깨너머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물론 인턴에게 정보 수집, 리서치, 번역 등 사무 일이 많지만, 대사관이라는 정부 기관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 되고, 개도국 자체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것만으로 다양하고 많은 NGO, INGO, UN 기구 등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이 때 당시 내가 만났던 네팔 유엔 봉사단 프로그램 오피서와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후 내가 유엔 봉사단원이라는 것도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쉬운 점이려면, 이제 조금씩 눈과 귀가 트이고 있을 무렵 네팔에서 허용 된 6개월이 다 되어갔다는 점이다. 조금이나마 네팔에서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코이카에서 처음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ODA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해외에 있는 각 코이카 사무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인턴들을 파견하여 개발 협력과 관련해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아직 네팔과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신들의 나라’ 네팔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다.

2011년 3월 말, 그렇게 6개월의 대사관 인턴쉽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이카 ODA 인턴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였다. 지원한 국가는 당연히 네팔이었다. 이미

네팔에서 6개월 간 대사관 인턴 활동을 해서인지, 감사하게도 네팔 코이카 사무소로 다른 인턴 3명과 함께 코이카 ODA 청년인턴 1기로 합격이 되었다. 네팔을 떠난 지 2개월 만인, 2011년 5월, 그렇게 나는 다시 네팔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개도국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한걸음 가깝게 다가간 ODA 청년인턴으로.

코이카 ODA 인턴으로써의 업무는 확실히 대사관 업무보다는 역량 증진 면에서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말 할 수 있을 거 같다. 자발적으로 길을 뚫어서 찾았던 대사관 인턴은 업무부터 생활 전반적인 적응까지 혼자 스스로 돌파구를 뚫어야 했다. 반면, 코이카 ODA 인턴 프로그램은 젊은 인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해외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적응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 예를 들면, 언어 교육부터, 네팔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상황까지 전반적인 업데이트 등을 교육받게 된다. 코이카 ODA 청년인턴으로써 내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코이카 봉사단원 사업 평가’ 와 ‘네팔 NGO 사업 평가 (중간모니터링-굿네이버스, 장미회, 서비스포피스, 해피타트, 세이브더칠드런 등) 보고서’ 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업무의 가장 좋았던 점은, 사무소가 위치한 카트만두를 벗어나 여러 지방을 두루두루 다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원조나 개발의 영향이 희미하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개발과 원조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이 한 층 더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두 형태의 보고서를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네팔 코이카 소장님과 부소장님께서 좋은 경험이라며 참을성을 갖고 옆에서 꼼꼼히 가이드를 주셨기에, 보고서 작성에 앞서 견고한 큰 그림을 갖고 시작 할 수 있었다. 주어진 큰 그림 안에서의 내 몫은 치밀한 배경조사 및 자료수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단계는 ‘관찰력’ 및 ‘건설적인 비판’ 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스스로 끊임없이 환기 시키는 훈련이었다. 잘 모른다는 걱정, 실수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위안은 연습뿐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면 출장일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카트만두의 빠른 개발 영향이 닿지 않는 산길을 헤쳐 가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목표한 현장에 도착하면, 관련 봉사단원 및 NGO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네팔 담당자들을 인터뷰 하는 일로 일과가 바로 시작 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현황을 기존에 조사한 프로젝트 계획과 비교하고, 현황점검을 하고, 수혜자들 (아이들, 농부, 마을사람들, 학생, 환자 등등)과 인터뷰를 해 보는 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했다. 한 프로젝트 당 수집된 정보양이 어마어마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출장 후,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수집된 정보 등을 침삭하여 합쳐 총 40 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 두 개를 끝냈다. 이 보고서 중 봉사단원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네팔 봉사단원들이 모두 모이는 단원현지평가 때 발표하게 되었다.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해보라는 의미에서 소장님이 직접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코이카 ODA 청년인턴으로써, 봉사단원들의 프로젝트와 네팔 내의 NGO 프로젝트를 공부하고 직접 분석 및 평가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일련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때의 이 경험은 유엔 봉사단원으로써 여러 유엔디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하는 현재에도 어김없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네팔에서의 1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스스로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 또한 깨우쳐 주었다. 즉,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최초로 하기 시작한 때이다. 개발협력부터 안보, 테러, 인권 등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해야 할 때임을 그 1년을 거치며 알게 된 것 같다.

Bemvindu iha Timor-Leste: welcome to Timor-Leste!

또다시 현장으로: 유엔 청년봉사단원으로 간 유엔디피 동티모르 사무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적인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경험과 지혜는 단단해지기 때문에 전문가 및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꼭 5년 혹은 10년이 지나야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거쳐야 하는 나름의 절대 값이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 학부 전공 공부, 네팔에서의 1년 경력, 그리고 2년 반의 석사 과정과 중간 중간 병행했던 여러 일을 통해 나름의 기초 공사를 끝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걸 믿고,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해보는 일이 남았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애초에 내가 목표했던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실제로 일을 해보는 것이었다. 환상만 갖고 국제기구를 맹목적으로 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도전 방법은 유엔청년봉사단 지원이었다. 유엔 봉사단원 신분으로 국제기구에 파견이 되어 1년 동안 맡은 업무를 하며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매력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유엔청년봉사단원으로 내가 지원한 분야는 유엔디피 동티모르 사무소의 Communication and Result Management Unit 의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Communication Officer) 직위였다. 사실, 인권이나 안보 쪽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싶었지만, 첫 유엔 경험인 만큼, 짧은 1년 안에 한눈에 유엔시스템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팀에 합류하여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체감할 수 있었다.

유엔디피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로서 내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엔디피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 및 일부 대중 사이에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둘째, 유엔디피 동티모르 프로젝트 팀들의 현황과 그들의 성과에 대해 기사화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 셋째, 프로젝트 중 성공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현지답사 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 내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각 유닛과 프로젝트 팀이 과거에 실행했던,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을 빠지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기사를 쓰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 문서들을 빠짐없이 복습해서 잘못 된 정보가 쓰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엔디피 동티모르 사무소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있어 나를 최전방에 서있는 만큼, 내가 몸담고 있는 유엔기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로서의 업무 자체가 유엔디피 뿐 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동티모르에 위치한 많은 NGO 들과도 상당한 접촉 및 교류를 맺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내가 몰랐던 혹은 알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여러 단체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기구가 각각의 기관 및 단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관찰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국내정세가 불안정 했던 동티모르 같은 경우, 국내 평화구축 및 갈등 해결을 위해 장기간 존재했던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의 잔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엔디피라는 개발 협력 파트너의 등장은 아직도 동티모르 정부에 낯선 편이다. 따라서 유엔디피 및 유엔기구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협력 파트너’ 라는 이미지를 동티모르 정부에 적극 어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티모르 정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유엔디피 측의 홍보방식 및 기사 작성 등도 매우 까다로워진다. 이렇듯 단순하지만은 않은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로서의 일을 하며, 유엔기구의 특성을 하나하나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일을 배워가고 있다.

끝맺는 말

이제 유엔디피 동티모르 사무소에서의 근무일도 3개월 남짓 남았다. 2015년이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나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걸 보니 나를 여기서 굶은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유엔봉사단 일이 끝날 즈음,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찾아 하고 있을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쓰며 나의 일련의 경험을 되새겨 보니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 열심히 뛰어다닐 스스로를 힘겹지 않게 떠올리게 된다. 지금 내 앞에 얼마나 많은 길이,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기회가 온 다면 망설임 없이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만약 혹시 막연한 걱정 때문에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혹시 아는가, 내가 세계 여러 한국 대사관에 자기소개서를 보내 네팔에 갔던 것처럼, 눈 딱 감고 도전한 일로 하고 싶은 일에 도달하는 지름길을 발견 할 수도 있다. 돌아가는 길이면 어떤가, 그것대로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고민만 한다면, 지름길도, 돌아가는 길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끝/

[별첨]



2010년 네팔, 카트만두. 걸거나 자전거를 탔던 나에게 출퇴근 시간은 네팔의 일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다.



2010년 당시 네팔 카트만두. 지진으로 인해 지금은 모습이 많이 변했겠지만, 카트만두는 정말 과거와 현재가 오묘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들의 나라'의 심장부이다.



2011년 당시 네팔 코이카 사무소 식구들. KOICA ODA 인턴 1기로 나를 포함해 총 4명의 인턴들이 들어서서 그런지, 북적북적하다.



2011.07.06.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한 코이카 식구들. 카트만두 대학교로 파견된 봉사단원이 유창하게 네팔어를 구사하며 기관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보며 'Volunteerism'의 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 기회였다.



네팔, 트리슈리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행 중이던 코이카 봉사단원의 프로젝트 평가 관련 인터뷰 중



2011.09.15. 네팔 코이카 봉사단원 현지평가회의에서 작성했던 봉사단원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단원들 앞에서 발표.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3시간 해안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도착한 아파바이 마을. 항상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일이다보니, 막상 내 활동 사진이 많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2015 11월. 한국정부의 MDG Trust Fund 지원과 동티모르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UNDP 가 진행하는 Salt Farm 프로젝트 현장 답사



2015. 동티모르에서 제일 높은 라멜라우 산 두 번째 등정!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나라. 휴일을 열심히 활용해 동티모르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